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0.vol.105 09/10

스페셜테마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뇌졸중에 관한 몇 가지 진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

인생에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경남 원장

So Beautiful 방송인 김혜영 인터뷰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건강한 웃음이 피어나는 가을 맞으시기를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쨍쨍한 하늘을 보여주는 등 올해 여름 날씨는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8월 초 입추가 지난지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무더위와 열대야에 힘들어하는 뉴스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많아 지난번 07+08호에서는 여름철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인사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번 09+10호에서는 한국인 사망원인 2위인 뇌졸중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은 두 번째로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후유증으로 오랜시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며,
증상이 좋아졌어도 재발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먼저 뇌졸중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뇌졸중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속하게 치료가 된다면 굳이 큰 수술까지 필요없는 것이 뇌졸중 치료의 특징임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뇌졸중 발병환자의 대부분이 재활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가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두셨다가
혹시 모를 일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해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9월엔 온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있습니다.
부디 아픈 분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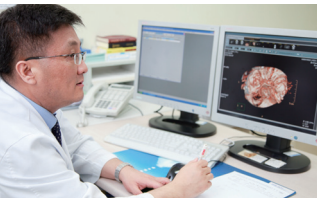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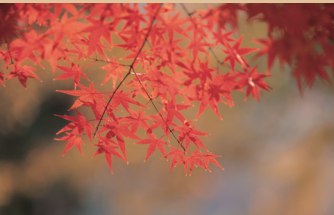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 성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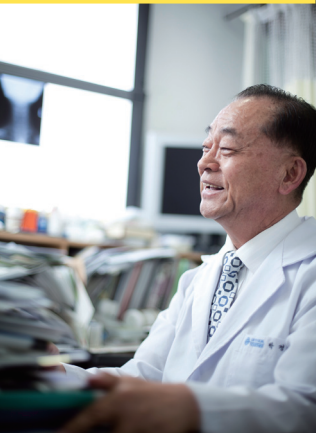
SPECIAL THEME

뇌졸중, 정확한 대처로 예방하고 치료하자!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시작되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은 발병 빈도가 높지만 설마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기 쉬운 질환이다. 발병하면 하루아침에 본인은 물론 주변인의 인생까지 달라지는 뇌졸중의 증상과 예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02 _ 즐거운 편지 | 건강한 웃음이 피어나는 가을 맞으시기를
- 04 _ 안녕하세요, 선생님 | 드라마틱한 선택의 순간들 뇌혈관 전문의가 되기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
- 08 _ 인생예찬 |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경남 원장
- 10 _ So beautiful | 꽃 속처럼 환한, 햇살처럼 따스한 방송인 김혜영



SPECIAL THEME

- 12 _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 14 _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뇌허혈'
- 16 _ 뇌졸중 후유증 극복하기
- 18 _ 진료과 들여다보기 |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20 _ 100세까지 88하게 | 스트레스를 이기면 인생이 칠칠해진다
- 22 _ 베스트 파트너 | 한양대학교병원과 협진 통해 더 큰 환자사랑 실천합니다
- 24 _ 사랑수첩 | 소아치료실과 함께 커간 보람
- 26 _ 오페라 이야기 | 차가운 팜프파탈 조르주 비제 '카르멘'
- 28 _ 영화 이야기 | 호접몽, 또는 꿈과 실제, 진실과 거짓의 모호한 경계에 대하여
- 30 _ Zoom in Focus | 꼼꼼하게 암을 찾아주는 똑똑한 PET-CT
- 32 _ Hanyang News | 박성수 교수,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외
- 35 _ 외래진료시간표 + 문화캘린더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0년 9월 1일 통권 105호 발행인 박성수 주소 133-792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hmc.hanyang.ac.kr> 기획·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표지 일러스트 안테이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287

드라마틱한 선택의 순간들 뇌혈관 전문의가 되기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딱히 결과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속해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순간의 선택에 의해 기자가 되고 싶었던 소년은 의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엿보다가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전문의로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재미있게 영화를 읽어주는 칼럼까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형중 교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자를 꿈꾸던 소년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학창시절에 이형중 교수는 늘 음악과 영화와 함께 했다. 수학과 물리를 싫어해서 자연스럽게 문과에 지원하여 막연하게 기자나 외교관을 꿈꾸었다. 그러다 사우디에서 근무를 하시고 귀국하신 아버님이 이과로 갈 것을 권유하셨다. 귀국과 동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 기술이 있는 전문직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신 것이다.

3형제 중 장남이었던 이형중 교수는 속 깊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과 영화는 취미로 즐기자고 정리를 한 후였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전공과목을 정하기 전까지는 늘 불안했었다. 사람에게 칼을 댄다는 것과 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고 때문에 해부학 실습 때 남모를 고생이 많았다고 본과 시절을 회상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과를 생각했었지만 정신과 실습 중에 ‘나와는

맞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었다.

내과 성적이 좋았지만 자신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지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인턴 시절 신경외과 뇌수술을 지켜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신경외과로 전공을 정한 후 그때부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가 시작되었다.

이형중 교수는 2000년부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2004~2005년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혈관내 수술’을 연수 받으며 실력을 쌓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07년 제 47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에서 심폐소생술 후의 생존과 신경학적 예후에 연관되는 요인들’이라는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2009년 미국인명정보기관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09~2010판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에 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이형중 교수의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본인은 다른 곳이 아닌 한양대학교병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맞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늘 환자를 돌보고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 변치않고 진료를 하겠다며 “진료가 늘 즐겁고 목숨이 위태한 환자를 수술로 회복시켰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되었다. 이로써 이형중 교수는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 (Marquis Whos Who)와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 이어 ABI에도 등재되어 중환자 집중치료, 두부외상,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임상과 실험 연구논문을 통해 그간의 독창적 연구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영화 읽어주는 의사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소식지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의 인기있는 코너 ‘영화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중 교수. 영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솜씨는 학창시절 기사를 꿈꾸어서 이해가 가지만 칼럼을 읽으면 영화를 보는 수준이 보통이 아니다. “꾸준히 영화를 보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군 시절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후임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와 친해지니 자연스럽게 영화를 공부할 기회가 생기거죠. 영화 전문 서적도 읽고 예술영화관에 가서 일반 관객이 접하지 않는 장르영화도 많이 보게되었죠.” 영화를 독학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다 환자 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도매하던 분이 치료에 대한 감사의 방법으로 원하는 비디오 100개를 말해달라고 했다. 설마 하고 리스트를 작성했더니 정말 다 구해서 주더라는 이야기를 덧붙이

며 웃어보였다. 그것이 이론적인 공부에 힘을 더해 영화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맞닿아는 영화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를 살리는 일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 뇌졸중 등 뇌수술이라고 하면 전부 개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않다.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혈관조영촬영기인 DSA를 도입하여 국소 마취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경외과는 영상의학과와 협조하여 뇌혈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형중 교수를 만나기 위해 2주를 기다려야만 했다. 언제라도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신경외과의 특성 때문이었다. 처음 인터뷰가 잡힌 날, 인터뷰 시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수술실로 달려갔던 이형중 교수. 뇌혈관 환자의 경우 일 초라도 늦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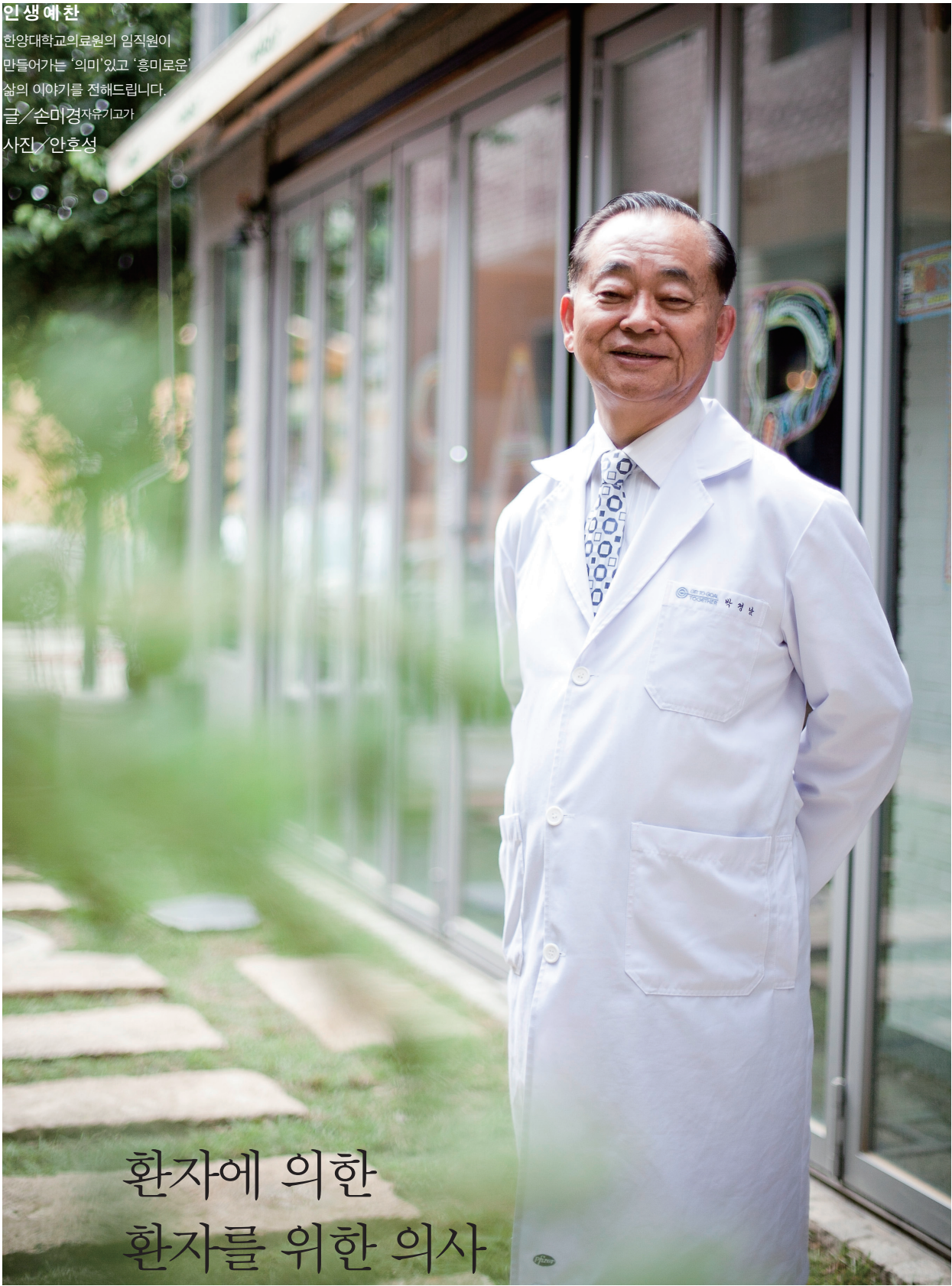
늘 응급환자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리는 일이 나를 서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고 말하는 이형중 교수가 있어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가 든든하다. 늘 준비되었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에서도 빛을 발휘한 그의 앞날을 응원해본다. 🍀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먼저인 이형중 교수는 꼼꼼한 진료로 유명하다. 작은 증상 하나라도 놓칠세라 외래진료를 할 때는 모든 감각을 열어 환자의 말을 경청한다.

앞으로 함께 나아갈 한양대학교병원의 규모와 시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애정이 큰 만큼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일침도 주저하지 않는다.





인생에 찬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글 / 손미경자유기고가
사진 / 안호성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경남 원장

지난 7월 ‘대한민국 인증대상 의료인증 대상’을 수상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박경남(75) 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외길 인생을 걸어왔음에도 한두 장으로 이력을 요약하기 어려운 것은 단 한 순간의 시간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부여받은 이의 각별한 인생철학 때문이다.

여덟 장의 이력서

그리고 한 장 반의 주요경력

‘의사’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을 뿐인데 지나온 삶을 이력서로 기록하니 무려 여덟 장에 이른다. 그것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니 한 장 반의 분량이 ‘주요경력’으로 재정리되었다. 어느 이력에서는 가슴이 뭉클하고, 또 어느 이력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묘한 울림이 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아침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이렇듯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에서 지냈음에도 환자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던 시절이 요즘 들어 부쩍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그때 박경남 원장은 퇴근하는 동료 의사들의 뒷모습을 매일 2층에서 바라보았고, 후배들을 위해 강단에도 섰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끊임없이 했었다.

그리고 그 뒷심이 되어 준 것은 ‘조금의 헛된 시간도 허락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였다.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이력이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72년에서 2001년까지, 한양대학교병원에서의 30여 년

“의사로 막 출발했을 때 내가 크게 놀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위장병 환자가 너무도 많다는 것과 내시경 연구가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미국 등에서 열린 소화기 관련 학회를 두루 다니면서 너무도 절실히 깨달았지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과 기타 다른 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박경남 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 시절을 각별하게 여긴다. 그곳에서 내시경의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시경 하나로 많은 위장병 환자들을 진료했고, 위암 직전 혹은 위암임을 잡아내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게 중



젊은 시절 미국 조지 워싱턴의 흔적을 찾아 갔을 때, 그가 말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이라는 문구 앞에서 결심했었지요.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자’고 말입니다.

에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달리한 이들도 있다.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 준 그들을 생각하면 크게 기뻐할 수도 또 크게 슬퍼할 수도 없는 애매한 감정의 경계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사는 데 소홀하지 않은 박경남 원장이 가장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된 것은 1972년에서 2001년까지다. 그때가 바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쉼 새 없이 환자를 돌보던 시절로 이력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 당연히 한양대학교병원에서의 30여 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활동적인 시기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대화를 통해

세심한 진료를 하는 의사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개원 멤버로 시작해서 퇴직 순간까지 진료를 했던 박경남 원장은 지금 서울 삼성동에 개인병원인 ‘박경남 내과의원’을 열고 오랜 경험과 사랑으

로 여전히 의술을 펼치고 있다. 이전보다 더욱 낮아진 자세로 환자를 돌보며,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에게 할애한다.

요즘 박경남 원장의 진료 시간은 좀 긴 편이다. 환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환자 한 명 한 명이 더욱 특별하고 귀한 인연으로 여겨진다. 환자들은 그와 같은 박경남 원장을 두고 “참으로 세심하게 진료하는 의사”라고 칭한다. 또한 공부와 연구를 여전히 병행하고 있는 까닭에 나이로 인한 퇴보가 없다.

새롭거나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젊은 후배들 틈에 앉아 공부를 하고,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신개념의 치료 방법을 연구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박경남 원장의 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원하는 의사의 모습을 재차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분야만 공부하면 안돼요. 진정한 의사는 통찰력 있는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몸은 하나부터 열까지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꽃속처럼 환한, 햇살처럼 따스한!

방송인 김혜영

수요일 아침 9시 30분. 주부들의 아침 시간을
꼭 잡고 있는 KBS TV 생방송 프로그램 <아침
마당>을 막 마치고 나오는 방송인 김혜영 씨의
환한 웃음이 싱그럽다. 작은 실수도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연진의 노련함이 필수요소인
생방송을 마친 이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
기하는 듯한 그 웃음이 특유의 생명력으로 이어
지지 않나 생각해보았다.



김혜영 표 긴 생명력

김혜영 씨는 국내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쇼>를 24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방송을 한다는 것
은 평범한 성실성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는
몸이 아플 때도 방송을 빠뜨린 적이 없고 심
지어 결혼식 당일에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송을 진행한 후 예식장으로 달려갔으며

신혼여행지인 제주에서도 현지의 라디오 방
송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다. MBC에서는
20년 이상 <싱글벙글쇼> 진행자로 활약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골든마우스상'을 수여
했는데 여성으로서는 첫 테이프를 끊은 것
이다.
세상이 그에게 박수를 칠 때 그는 방송기
자인 남편과 공동 진행자인 강석 씨의 도

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기도 했다. 남편은 일하는 아내의 마
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늘 '하고자 하
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라'며 힘을 주
었다고 한다.
물론 육아와 가사도 분담해서 힘을 덜어주
었다고 한다. 방송 호흡이 척척 맞는 강석
씨는 동료로서 좋은 자극이자 든든한 지원
군이라고 한다.
긴 생명력은 일에 멈추지 않고 '관계'로 나
아간다. 단짝이 되어 줄곧 라디오 방송을 함
께 해온 강석 씨를 비롯한 방송국 사람들이
그렇고 벗, 선후배들이 그렇다. 특히 가수
현숙 씨와의 우정은 각별한데 두 사람은 17
년째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금을 좋은 부부가 닮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
람들은 닮는다. 김혜영 씨와 가수 현숙 씨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 늘 햇살처럼 따뜻한 웃
음을 잃지 않는 것이 그렇고 옷이며 발 치수
가 같은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처럼 옷과 신
발을 바꿔입기도 하고 하나의 옷과 신발을
번갈아가며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인터뷰 도중 현숙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
다. 공연을 가려고 하는데 언젠가 동생 김혜
영 씨에게 선물했던 블라우스가 떠올랐고
마침 김혜영 씨가 입고 왔다고 하자 옷을 맞
바꿔 입기로 한 것이다. 늘상 있는 일이라며
김혜영 씨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왔다. 참
재미있게 사는 자매다 싶다.

아픔을 통해서 기쁨을 알듯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명도와 채도를 한
껏 올려놓는 김혜영 씨는 다양한 분야의 홍
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부모님의 고향
인 경남 하동군과 11살까지 살았던 원주시
와의 인연으로 하동군과 원주시의 홍보대사
로 활약하고 있으며, 밝고 알뜰한 이미지로
물가안정홍보대사에 임명되었다. 빛나는 삶

에 아픔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악성신장염이었어요. 가는 병원마다 암담
한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애
들 생각에 평평 울기도 했어요. 그런 제 손을
잡고 현숙 언니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이끌
었지요. 한양대학교병원은 현숙 언니가 부모
님을 마지막까지 모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신적 치료를 받았어요. 당시 병원장
이셨던 박진영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하
신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죠. 선생님은 '김혜
영 씨, 내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 '국내 톱 5
의사' 중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라고 하시
면서 강한 믿음과 희망을 주셨어요. 마음에
힘을 얻으니 몸도 좋아지더군요. 몸과 마음
은 하나라는 진리, 절실하게 느꼈어요."

햇살이 아무리 환하게 비쳐도 그림자는 있
게 마련, 그는 그림자를 보기보다는 햇살을
보기로 했다. 그는 신장이 건강을 위한 특
별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고 스트레스 받고 살
지 않기 위해 경보기 하나 마련했다고 생각
한단다.
김혜영 씨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고 한다.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을 뜻하고,
잘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설명한다.
'평범한 진리'를 지키는 삶의 소중함을 말
하며 그는 다시금 라일락향기 은은한 환한
웃음을 지었다.☺



'소녀같이 순수한 누나'의 팬을 자처하며 인터뷰하는 데 힘을 실어주려
왔다는 <아침마당>의 이현희 PD는 수요일 코너의 고정패널인 누나가 참 많은 힘이 된다고 했
다. 그는 '누님'이 아닌 '누나'라고 했다.
"탄탄한 방송경력으로 프로그램의 맛깔난 양념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
하는 누님입니다. 따뜻한 인간 난로 같은 누나에겐 할머니가 되어도 누님이란 말보단 누나란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소녀가 그대로 누나가 되었다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일 거예요."

Special Theme

뇌졸중에 대한
몇 가지 진실

글.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현영 교수
사진. 김선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을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가 기억난다. 중풍에 걸려서 반신마비로 누워 있던 환자를 걷게 만든 기적의 신의(神醫) '허준'. 과연 이런 방법이 최첨단을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올바른 방법일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다. 수 개월이 아니라 몇 시간, 몇 일간의 적절한 급성기 치료로 환자를 호전시키는 최첨단의 현대의학에 의지하고 기대해 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 뇌졸중의 기본상식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뇌졸중이란?

뇌졸중은 동의어가 많다. '뇌졸중=뇌중풍=중풍=뇌혈관질환' 모두 같은 의미이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뇌졸중이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써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뇌졸중의 예방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성인병을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외에도 흡연, 당뇨병, 경동맥협착,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주요한 원인질환이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기저질환들을 평소에 잘 치료하고 대처하는 것이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갑작스럽게 수저나 컵을 쥐고 있지 못하고 자주 떨어트린다면 빠른 검진이 필요하다.

● 뇌졸중의 치료

만약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급성기 뇌졸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큰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혈전용해제와 혈관성형술을 적절히 사용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재개통 시켜주어 뇌손상부위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뇌졸중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의 응급실을 바로 방문해야 한다.

● 뇌졸중의 증상

뇌졸중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응급 증상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손, 발이 저리다. 손, 발이 시리다. 뒷골이 빠근하다. 얼굴이 실룩거린다. 손이 떨린다' 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검진과 정밀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뇌졸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뇌졸중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몸의 한 쪽이 움직이지 않고 힘이 빠진다. 예를 들어 같은 쪽 얼굴-팔-다리가 힘이 빠진다면지 수저나 컵을 쥐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된다.

갑작스러운 의식장애가 있거나 언어장애도 흔한 증상이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거나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한다거나 발음이 이상하고 말이 새는 증상이 생기거나 말을 하지 못하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시야장애나 복시(이중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양측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왼쪽 중 일부가 잘 보이지 않거나 막이 낀 것처럼 회색으로 가려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

상과 갑작스럽게 물체가 두 개로 겹쳐보이는 증상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주위가 뱅뱅 도는 느낌이나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증상, 그리고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뇌졸중이나 소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극심한 두통이 생겼거나 구토, 의식장애가 있다면 급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른 검진과 검사가 필요하다.☎

뇌졸중이 의심스러울 때 DO & DON'T

DO

- 1) 119에 전화! 즉시 병원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19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 외래 진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2) 큰 병원에 가세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 MRI, CT 등 급성 뇌졸중 검사가 가능한 병원
- 3) 토하는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DON'T

- 1) 병원에 가지 않고 손 끝을 따고 기다리는 일
- 2) 병원에 가지 않고,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다리거나 침을 놓고 기다리는 일
- 3) 의식장애가 있어 깨어나지 않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이는 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들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 두잔 이하로!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
4. 매일 30분 이상 충분히 운동
5. 적정 체중 / 허리둘레 유지!
6.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8.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치료

깜박깜박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뇌졸중은 크게 출혈형과 폐색형으로 나뉜다. 혈관이 터진 출혈형을 뇌출혈, 혈관이 막힌 폐색형을 뇌경색이라고 표현하며, 뇌혈류가 감소되어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며 뇌가 손상되기 직전의 이러한 상태를 뇌허혈이라고 세분한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 차원에서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뇌허혈의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뇌경색 및 뇌허혈에 대한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에 의해 뇌가 손상된 경우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뇌가 졸(卒)하고 있는 중(中)이므로 어떠한 원인으로라도 뇌가 망가진 상태를 말하며 한방에서는 흔히 중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뇌졸중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없어지거나, 혹은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거나 심한 두통과 구토가 일어난다. 갑자기 멀미하듯이 어지럽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 위험신호인 뇌허혈 증상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

우선, 뇌는 매우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면 몇 시간만 지나도 큰 손상을 받게 되어 뇌는 시시각각 망가지면서 붓기 시작한다. 따라서 뇌경색의 증상이 발생한 즉시 수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 검사를 실시한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응급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막힌 동맥의 근위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을 단시간에 제거하는 시술이다. 단, 이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따르는 시술이므로 뇌혈관전문 의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부어오른 뇌를 가라앉히고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뇌부종이 심한 경우 뇌압조절을 위해 개두술을 통한 감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치 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후에 반복되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뇌졸중이 발병하였거나, 뇌허혈이 확인된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라는 혈액순환개선제의 유지요법을 꼭 시행해야 한다.

●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만성으로 경동맥이나 뇌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경우, 약물치료를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뇌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관성형술(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또는 직접 수술법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수년 동안 방사선 영상장치와 뇌혈관중재술 기구 및 약물들의 발달로 국소마취 하에서 피부와 경동맥의 절개 없이 협착부위를 혈관안쪽에서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수술적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한 결과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되었고 현재는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에게 시술되고 있다. 시술방법은 서혜부의 대퇴동맥을 통해 혈관 내로의 진입로를 만들고 심장을 거쳐 경동맥 근위부에 치료도관을 위치하고 난 후 이어 협착부위 경동맥에 자가 확장성 스텐트를 삽입하여 협착부위를 인위적으로 확장한다. 이후

잔여 협착에 대해서는 혈관성형술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경동맥의 충분한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시술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이고 수술 후 별문제가 없다면 3일 후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술 후 추적검사로 정부 초음파를 이용하여 동맥경화의 재발이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며 합병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항혈소판제제의 경구 투여는 역시나 필수적이다.

●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예방하자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심장 세동 및 그 밖의 심장 질환, 흡연, 당뇨, 기타 동맥경화증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이외에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등이며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며 꾸준한 운동을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뇌졸중은 약 80%의 환자에서 평생 장애를 남김으로 후시라도 뇌졸중 증상을 느낀다면 조속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땐 뇌허혈을 의심해 보세요

뇌졸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 위험신호에 해당하는 뇌허혈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뇌허혈 증상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면서 (대개 1시간 이내) 멀쩡하게 회복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와 같은 증상을 “요즘 피곤해서...”, “빈혈이 있어서...” 혹은 “기(氣)가 허(虛)해서...”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뇌졸중으로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뇌허혈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 | | |
|--|---|
| <p>01 말할 내용이 있는데 입으로 말이 잘 안 나왔어요.</p> <p>02 말할 때 사탕 물고 하는 것처럼 어눌하다고 식구들이 놀렸어요.</p> <p>03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한쪽 팔의 힘이 빠져 그릇을 놓쳤어요.</p> | <p>04 갑자기 커튼을 확 닫는 것처럼 한쪽 눈이 안 보였다가 좋아지더군요.</p> <p>05 깜박하고 어지러웠다가 가만있으니까 곧 좋아지더군요.</p> <p>06 갑자기 팔 다리가 저려오다가 쉬니까 멀쩡해 지더군요.</p> |
|--|---|

Special Theme

뇌졸중의 재활적

치료

—

글,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이규훈 교수

●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적, 이동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해진다.

뇌졸중 후유증 극복하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그의 취미,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기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뇌졸중 후 마비되었던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데 90% 이상이 대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능의 회복은 환자의 노력과 재활 치료를 통하여 수년 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초기 수주의 회복 기전은 국소적인 부종과 혈종의 개선, 혈액 순환의 개선, 뇌압의 정상화, 대사 이상의 개선 등에 의한 것이며, 기능적 회복은 뇌가소성에 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 손상 후 뇌가 재구성 혹은 재배치하는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주위 환경이나 병변에 맞도록 대뇌의 기능과 형태가 변하는 신경계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뇌졸중 후 운동기능의 회복은 이러한 뇌의 가소성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는 반드시 작업 목적이 있는 반복적 훈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즉 장기간의 반복된 학습은 새로운 대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좀 더 나은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졸중 후 초기부터 다양한 운동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치료 목표는 현실적으로

재활의학과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대해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비롯하여 적응해야 할 환경까지 고려해가며 환자를 돌보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뇌졸중 환자를 재활하기 위한 재활팀을 구성하여 치료하고 있다.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평가와 지도 아래 재활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물리치료는 마비된 부위의 운동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마비된 신체 부위의 근력을 향상시켜주며, 앉은 자세부터 보행을 할 때까지 기능적 회복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작업치료는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세수하고 식사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을 연습하며, 기억력,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언어치료는 말과 글을 잊어버린 실어증이나 발음이 안 되는 구음장애 등의 언어장애를 평가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기적으로 환자의 기능 달성도를 재평가하여 치료 목표를 조정하도록 한다.

● 병변 후 1주가 관건

뇌졸중 환자에게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48시간 이상 신경학적 진행이 더 이상 없고, 두 단계의 명령수행이 가능하면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뇌졸중 발생 후 직접적인 사망의 90% 이상이 대부분 1주 이내에 일어나고, 병변의 재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적극

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의 시작은 전형적인 편마비 환자의 경우 최소 1주 경과 후가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뇌졸중 급성기에 해당하는 1주 이내의 재활치료는 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학적 및 내과적 치료와 분리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재활치료의 목적은 각종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신경학적 증상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동을 시작해서 경사대를 이용한 서기 연습 등의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심부정맥 혈전증, 위식도역류, 흡인성 폐렴, 관절구축, 기립성 저혈압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뇌졸중 후 우울증은 매우 흔하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활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정신 요법, 정신 사회적 지지,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뇌졸중 환자의 약 75~85%는 재활 치료 후에 퇴원한다. 많은 뇌졸중 환자가 치료 후 이동 능력이나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직업적 결과는 기능적 회복의 정도만큼 좋지 않다. 따라서 환자가 퇴원하면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 하던 일을 가족이 맡게 되므로 의료진은 가족에게 역할 분담 등의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의사는 뇌졸중 후 장애가 남아있는 환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연금 등을 위한 장애를 평가하며, 사회사업가는 뇌졸중 환자의 직업, 보험, 보상을 도와야 한다.●

●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평가와 지도 아래 재활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남다른 화합으로 최적의 환자 치료를 꿈꾸다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현대 마취과학은 최근 약 40~50년에 걸쳐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술실에만 국한되어 있던 마취과 의사의 업무 영역은 오늘날 수술실 밖으로 확대되며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1972년 설립 이후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교수들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마취 수술의 좋은 성적 얻어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실에서
의 마취뿐만 아니라 수술 전 환자 평가
와 수술 후 진통까지 담당하며, 통증클리닉
을 통해 다양한 만성 통증치료를 하고 있
다.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선 중환자들을 진
료하는 외과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뿐
만아니라 혈관촬영실이나 신생아실에서도
마취를 담당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마
취통증의학 분야에서 좀 더 전문화된 최적
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현재 7명의 전임 교수(전
중헌, 유희구, 서정국, 김교상, 심재철, 김동
원, 정미애)와 임상강사(이희중)1명, 전공의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중헌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주임교수로 최근
‘2010년 제30차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
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밖에
다른 전임교수들의 연구 활동도 돋보인다.
심재철 교수는 대한통증학회 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김동원 교수는 최근 ‘대한뇌신
경마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
상했다. 김교상 교수 또한 ‘제86차 대한마취
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영 학술상을 수상
하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다
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마취 실수를 줄이고,
좋은 수술 성적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전중헌 교수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통증 고
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마취통증의학
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키워나가겠다”
고 말했다.



교수들과 전공의들의 남다른 화합이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

무엇보다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 장점은 최고의 마취통증의학과로 거듭나기
위해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남다른 화합을 과
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동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의 장으
로 마취과학교실 동문회 카페를 개설했으
며, 정기적으로 함께 산행길에 오르고 있다.

또한 취재 중 그 남다른 화합의 현장을 목
격할 수 있었는데, 일주일 중 가장 여유가
있는 월요일의 오후를 틈타 마취통증의학
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
됐다.

백발의 나이 든 교수들과 젊은 혈기로 뽕뽕
뭉친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피자를 먹
으며 서로의 의견을 마음껏 터놓고 나누는
모습에서 그들의 남다른 화합과 더욱 큰 발
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전공의 2년차인 조주원 학생은 “마취통증의
학과가 변화에 민감한 학문이라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합심해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고
있다”며 “교수님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 늘
연구하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
들 또한 교수님들의 활동을 도와드리며 각
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중헌 교수 또한 “우수한 임상능력과 의욕
적인 연구활동, 휴머니즘에 입각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환자들이
수술 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④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와 함께 행복한 임종을 준비하는 WELL-DYING 프로그램과 강좌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스트레스를 이기면 인생이 칠칠해진다

‘칠칠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1. 나무, 풀,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 2. (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주점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3. (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칠칠치 못하게’ 또는 ‘칠칠맞게’에 익숙하지만, ‘칠칠하다’라는 뜻은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칠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의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스트레스 VS 부정적 스트레스

신체의 건강은 정신의 건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울이나 불안은 건강한 신체의 기능을 떨어뜨려 다양한 기능이상을 일으키며 기억력, 집중력 등 대뇌의 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까지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또

는 즐겁게 웃을 때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스트레스 또는 포지티브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 또는 네거티브 스트레스입니다. 대표적인 정신적 디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불쾌감, 걱정, 염려 등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스트레스는 늘리고 디스트레스는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디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 의심을 하고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나 염려가 정말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 질문들을 떠올려서 능동적으로 디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삶과 멋지게 작별하기

우리가 100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만에 가족들을 포함한 내 인생의 모든 것과 쿨~하게 안녕을 고하려면 인생, 특히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기에 우리가 늘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죽음은 우리 주위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문제이며,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100세에 88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90세, 빠르면 60세 넘어서부터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슬슬 그 사람을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친지 중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면 이 두려움은 어느 새 실체가 되어 나의 삶 깊숙이 해결되지 않는 디스트레스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Well-dying’ 프로그램

요즈음은 죽음을 외면하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공포를 잊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도에서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도 생겨났습니다.
유서도 미리 써 보고 수의도 읽어보고 관에도 들어가 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기 직전까지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지 결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10088234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죽음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삶은 결코 10088도 안되고 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디스트레스에 대해 의심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고, 피할 수 없는 숙제인 죽음에 대해 직면하고 숙고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100세까지 88할뿐만 아니라 77하여 끝마저도 반듯하고 야무지게 매듭지을 수 있는 1008877234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④

베스트 파트너

안에서 배운 ‘사랑의 실천’을 세월이 지나 밖에서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한양가족’을 소개합니다.

글／김민혜

사진／김선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진 통해 더 큰 환자사랑 실천합니다

양평길병원 오세중 원장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자에 관해선 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오세중 원장. 그런 그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라면 믿고 환자를 보낼 수 있다는 말에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환자를 향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양평길병원의 오세중 원장을 만나보았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싹트는 정

정치가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위치한 양평길병원은 군내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병원 곳곳에서 느껴지는 정겨운 푸근함이 웬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들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MRI, 관절내시경 장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 의료시설이나 시스템 면에서 만 큼은 대형병원 못지않게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 에 맞춘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다, 관절 내시경클리닉, 복강경클리닉, 척추센터 등 특수클리닉의 문을 활짝 열어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펼치고 있다. 또 한 홀로 계시는 어르신 환자분들을 위해 병실에 간병인을 배치한 요 양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골절과 인공관절 수술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오세중 원 장은 연세가 지긋하신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가 많은데, 어르신 환자 분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인기스타다.

“저희 병원에는 자식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진 돌 때마다 외롭지 마시라고, 빨리 회 복하시라고 한 분씩 손을 꼭 잡아드리곤 하지요. 수술을 앞두고 마 음이 심란하신 분들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 드리려고 노력하 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제 손에 담배 한 갑, 요구르트 한 줄을 쥐어주시며 고마움을 표현 하시곤 합니다. 제 가 오히려 환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셈이지요.”

협진의 필수조건, ‘믿음’과 ‘환자사랑’

양평길병원에는 밤 시간 때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는 응급환자들이 많다. 주로 외상이 크거나,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한양대학 교구리병원으로 협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으로 보내는 협진환자 수만 해도 하루 3~4명 꼴이다. 1분 1초를 앞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데다, 의대시절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선, 후배 의료진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환자를 보낼 수 있다고.

“작년에 응급실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환자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 환자가 뇌손상을 심하게 입어 한 시라도 수술이 급한 상황이었지요. 다행히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여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다시 저희 병원으로 와서 한 달가량 치 료를 더 받은 후에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양평길병원의 오세중 원장과 가정의학과 윤상범 선생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의 꿈을 함께 키워 온 동문으로, 동서의 인연을 맺기도 했다. 한 가족이 된 그들 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이 들 때마다 서로에게 든든한 조연자의 역할을 하며 같은 길을 걷 는 동반자로서는 힘이 되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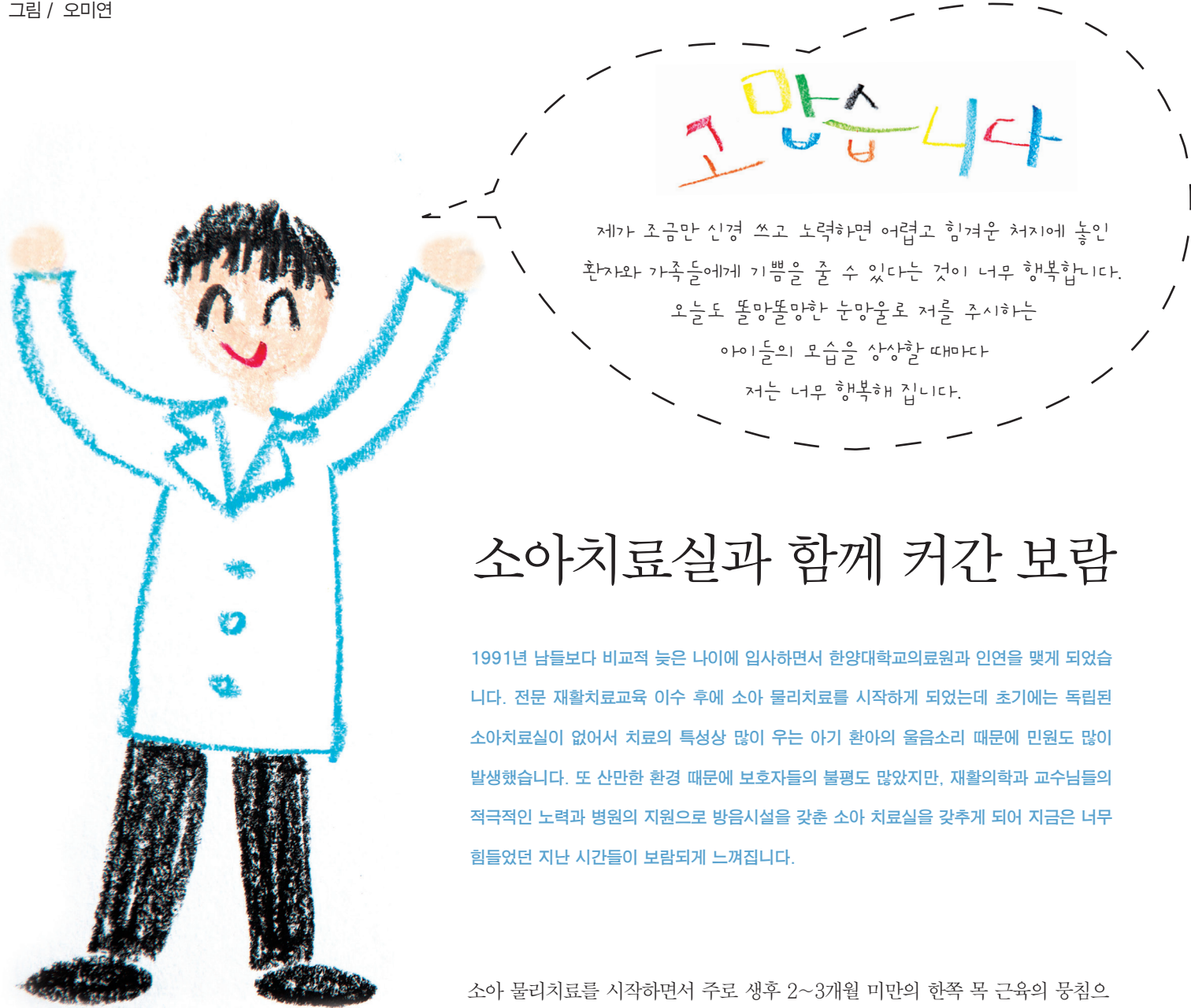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오세중 원장은 모교와 특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대학시절, 의사의 꿈을 함께 키워온 두 명의 동문과는 동 서관계가 되어 가족으로, 때로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서로에게 늘 힘이 되고 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진을 통해 환 자들에게 보다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협진 보낸 환자가 수술 후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다시 찾아 올 때면 한양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오세중 원장. 그는 앞으로도 한 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협진이 필요한 환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보내고, 그 곳에 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저희 병원에 와서 남은 치료를 마 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진을 통 해 환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평군의 건강지킴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수첩

오늘 실천한 사랑이 타인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임직원들의 세상은 이야기
글 / **염일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주임
그림 / 오미연



소아치료실과 함께 커간 보람

1991년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사하면서 한양대학교의료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문 재활치료교육 이수 후에 소아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독립된 소아치료실이 없어서 치료의 특성상 많이 우는 아기 환아의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만한 환경 때문에 보호자들의 불평도 많았지만,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병원의 지원으로 방음시설을 갖춘 소아 치료실을 갖추게 되어 지금은 너무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소아 물리치료를 시작하면서 주로 생후 2~3개월 미만의 한쪽 목 근육의 뭉침으로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경 환아와 정상적 발달보다 발달이 지연된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아동들의 보호자가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어서 아이 육아에 아직 서툴고 병에 대한 충격으로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합니다. 따라서 치료 이전에 엄마들의 정신적 충격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실 내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소아 물리치료의 특성상 가정에서도 꾸준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소아과와 재활의학과 간 협진으로 발달장애의 징후가 보이는 영유아는 신생아 중환자 치료실에서부터 조기치료를 시작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 남양주에서는 보이타 치료 코스를 정식으로 이수하고 소아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유일하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치료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환자들의 재활에 힘쓰면서 이런저런 사연들도 많았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쌍둥이 뇌성마비 아이들의 재활을 도왔는데 재활을 시작한 때가 아이들이 6살 때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겨 다니시며 오직 아이들의 물리치료만을 위해서 외래치료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라 저도 마음이 많이 갔고, 어머니의 열성에 저도 더 열심히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부축이 있어 야만 서 있을 수 있었던 아이가 꾸준한 소아 물리치료 덕분에 잘 걷게 되었고 걷는 모양이 많이 자연스러워 졌습니다. 또 여러 물리치료사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성격도 밝게 변하여 아이의 어머니나 저나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재활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치료실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가정 내 프로그램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치료를 자주 받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도 가끔 아이와 어머니가 손수 김밥을 싸가지고 치료실에 들르기도 하시는데 이럴 때는 정말 치료사로서의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재활치료의 과정은 길고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 물리치료는 성인 재활치료에 비해서 대상 환자가 더 어리고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적절한 부모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성인 재활치료에 비해 치료를 시행하는 곳이 적습니다. 더구나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소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항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 치료실에는 대기 환아가 많고, 기존에 치료받던 환아들도 6개월간만 소아 물리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아 물리치료를 시작하면서 2007년에는 근육병을 앓는 환아 부모님께서 다른 근육병 환아들에 대한 어려운 사연을 전해와 경제적인 문제와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적 문제를 가진 근육병 환아와 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절친한 치료사들의 도움과 병원의 지원을 받아 근육병 장애우들의 홈케어 물리치료를 활성화 하려는 무료건강클리닉인 '개나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참석하는 근육병 환아와 부모님을 뵈면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게 돼서 저 자신도 기쁘고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뚝뚝뚝한 눈망울로 저를 주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 집니다. 그 아이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 치료실에서 힘든 재활치료를 받은 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랄 것을 상상하면 오늘의 피로도 잊게 됩니다.

소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소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는 환아와 부모님들께 부족한 인력과 공간 문제로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개시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더욱 충분한 소아 물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 공간과 전문 인력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페라 이야기

글／오재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차가운 팜프파탈

조르주 비제 ‘카르멘’ Georges Bizet ‘Carmen’

비제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10살 때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한 영재였다. 하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기숙사생활을 한 나머지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에 시달린다. 이런 배경으로 그의 여자관계는 어머니뻘 되는 연상녀와 교제하고 가정부와 아이를 낳는 등 비정상적이었다. 비제는 ‘카르멘’의 33번째 공연이 막을 내리기 1시간 전 갑작스런 심장발작과 인후의 농양으로 인한 전색증으로 사망한다. 작가 하이네는 비제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은 매혹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의 정열’이라고 말했다. 카르멘을 작곡할 당시 비제는 ‘유별나게 집착하고 몰두하여 과로와 심리적 부담이 겹쳐 일종의 공황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영화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카르멘

GEORGES BIZET ‘CARMEN’

대중이 사랑한 파격

1875년 봄 파리 오페라 코믹극장에서 한 편의 오페라가 막이 올랐다. 무대에는 담배공장 여공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선정적인 행동과 욕설과 함께 등장한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퇴폐적인 장면이었다. 오페라 코믹극장은 가족용 극장으로 여주인공들은 순결했고 남주인공은 믿음직했으며 우아하고 신화적인 내용만이 가능했던 분위기였다. 카르멘을 무대에 올리려고 비제는 극장장을 설득하는데 6개월이 나 걸렸다.

어렵게 ‘카르멘’을 무대에 올렸지만 비제는 비평가들의 혹평과 대중의 냉담한 반응을 견뎌내야 했다. 초연 날 관객 중에는 구노, 들리브, 오펜바흐, 마스네, 알퐁스 도데, 알렉상드르 뒤마 등 당대 수많은 음악계와 문단의 저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막이 끝나자 청중의 열광은 굉장했다. 그러나 제2막이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갈채, 제3막은 더 적어진 박수, 제4막은 침묵이었다. 이미 끝나기도 전에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하지만 공연은 횃수를 거듭할수록 대중의 인기를 얻어 초연 후 3달 만에 37회의 공연을 기록했다.

정열적인 사랑의 비극

메리메의 원작 소설인 ‘카르멘’은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자명시계를 돈 호세에게 도난당한 박식한 프랑스 고고학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카르멘의 대본작가 메이약과 알레비는 수년 동안 대본을 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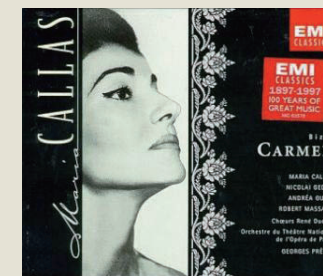
제1막 유명한 전주곡과 함께 막이 오르고 무대는 담배공장 앞의 광장. 한가한 병사들 사이에 미카엘라가 돈 호세를 찾고 있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담배공장 여공들이 담배를 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그중 입에 장미를 문 집시 카르멘이 유혹적인 목소리로 ‘하바네라’를 부르면서 병사 돈 호세에게 추파를 던진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그도 점차 카르멘의 유혹에 빠져든다. 미카엘라는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줘요’를 부르며 오랜만에 돈 호세와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그녀와 결혼하라는 당부가 들어 있다. 담배공장에서는 카르멘과 다른 여공들이 서로 싸우며 뛰쳐나온다. 상관은 돈 호세에게 카르멘을 체포해 감옥으로 보내라고 명한다. 카르멘은 ‘세빌리아의 성 가까이에서’를 부르며 자기를 풀어주고 후에 릴라스 술집에서 밀회하자고 그를 유혹한다. 카르멘을 풀어준 그는 두 달간 영창에 간다.

제2막 세빌리아근처 릴라스 술집. 3개월 후.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투우사의 노래’를 부르며 카르멘을 유혹하지만 그녀는 ‘나의 사랑은 돈 호세’를 부르며 투우사와 다른 장교의 유혹을 뿌리친다.

들을만한 ‘카르멘’ 음반



◎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테레사 베르간자(카르멘), 플라치도 도밍고(돈 호세)(DG, 1977)



◎ 조르주 프레트르(지휘), 파리 국립 오페라, 마리아 칼라스(카르멘), 니콜라이 게다(돈 호세)(EMI,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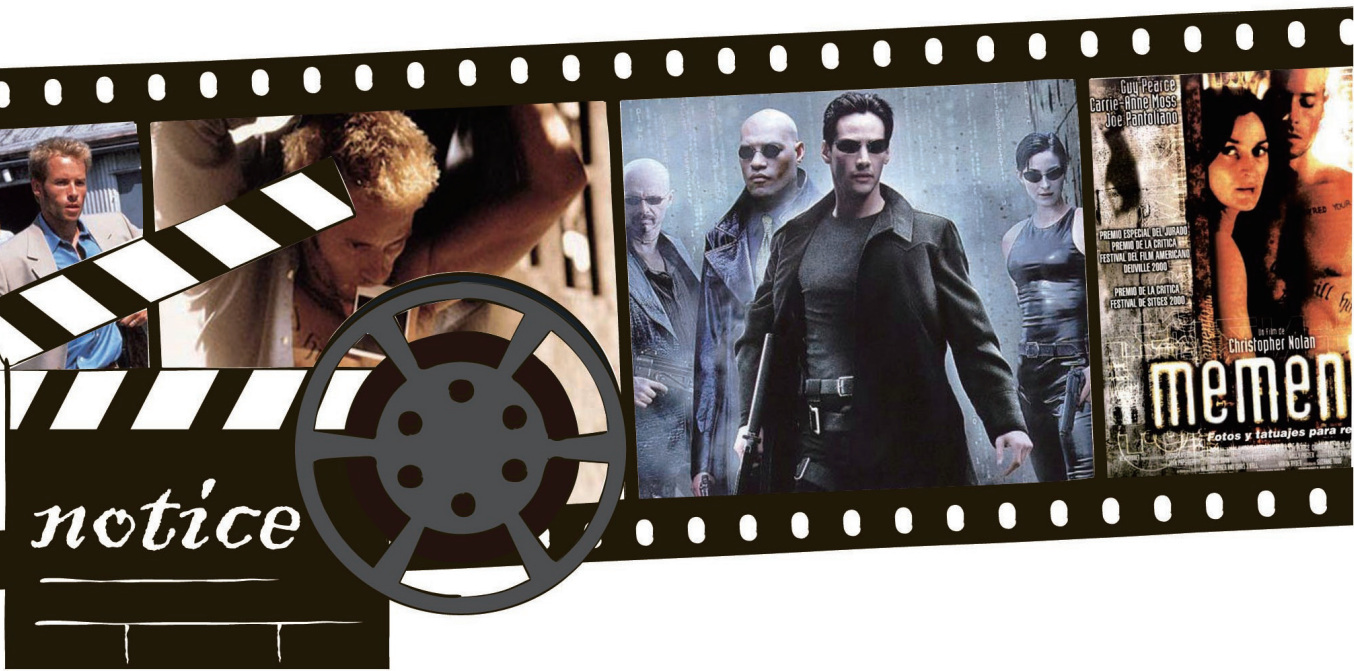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베를린 필, 아그네스 발차(카르멘), 호세 카레라스(돈 호세)(DG, 1982)

밀수업자 레멘다토와 단카이로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세관원을 유혹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돈 호세가 돌아오자 카르멘은 그를 반기며 노래와 춤을 춘다. 귀대를 명령하는 나팔소리가 들리지만 카르멘이 앙탈을 부리며 귀대를 말린다. 돈 호세는 유명한 ‘꽃노래’를 부르며 그녀와 함께 밀수업자들을 따라 나선다.

제3막 산속의 한적한 계곡. 밀수업자들과 함께 호세도 있지만 카르멘은 벌써 그에게 실증이 났다. 친구들의 카드점에서 카르멘이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점이 나온다. 그녀는 ‘도망쳐 봐야 아무 소용없지.’라는 아리아를 독백한다. 이때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돈 호세는 질투에 못 이겨 칼을 들어 덤비고 밀수업자들이 그들을 말한다. ‘이젠 두렵지 않아’를 부르며 나타난 미카엘라가 어머니가 위독하니 고향으로 가자고 설득하고 카르멘도 떠나라고 경멸하듯 말한다. 돈 호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리치며 미카엘라와 함께 산을 내려간다.

제4막 세빌리아 투우장 밖 광장. 화려한 옷차림의 카르멘이 투우사 에스카미요의 팔짱을 낀 채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에스카미요는 ‘카르멘, 그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을 부르며 투우장으로 들어가고, 친구들이 홀로 남은 카르멘에게 호세가 와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폐인이 된 돈 호세가 나타나 다시 자기와 함께 가자고 미친 듯 설득하지만 카르멘은 돈 호세가 준 반지를 발밑에 던지며 절교를 선언한다. 이에 참을 수 없게 된 돈 호세는 달아나는 카르멘을 붙잡아 단도로 찔러 죽인다. 주검을 끌어안고 “그대를 죽인 건 나다. 오 나의 사랑하는 카르멘”하며 절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영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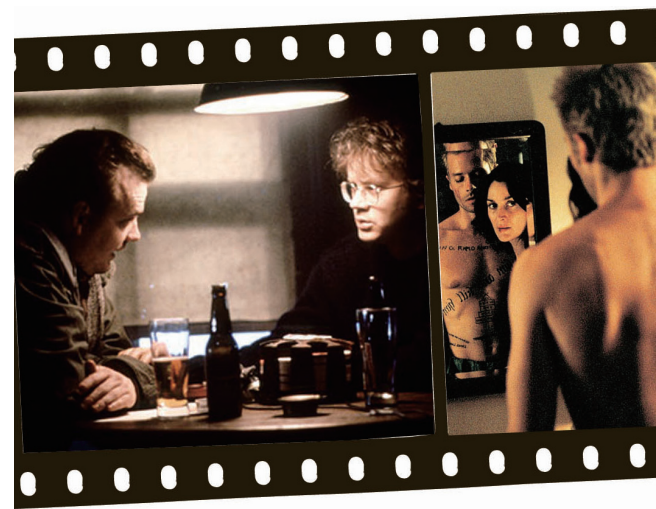
글/이형중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호접몽(胡蝶夢), 또는 꿈과 실제, 진실과 거짓의 모호한 경계에 대하여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심상을 혼란스럽게 유평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크나이트에서는 선과 악의 모호한 이분구도를 세련된 블록버스터로 구현하더니, 드러나지 않는 은유와 상징, 기호를 통해 인셉션으로 관객을 시험하고 있다. 몰입할수록 꼬이는 열린 결말은 피비우스의 떠처럼 꿈과 실제의 치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담론을 양산하고 있다.

살인사건에 대해 저마다 다르지만 개연성 있는 진술로 현상과 진실 사이의 관계를 해석이 아닌 해체로 표현한 라쇼몽은 데리다의 말처럼 진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것이란 왜곡된 기억의 가소성을 그려냈다.



몰입할수록 꼬이는 열린 결말은 피비우스의 떠처럼 꿈과 실제의 치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담론을 양산하고 있다. 살인사건에 대해 저마다 다르지만 개연성 있는 진술로 현상과 진실 사이의 관계를 해석이 아닌 해체로 표현한 라쇼몽은 데리다의 말처럼 진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것이란 왜곡된 기억의 가소성을 그려냈다.



가상현실이란 무대에서 오감으로 접하는 이 세상은 **매트릭스**에서 보여지듯 불완전하고 본질이 아닌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삽화들을 무의식 수준에서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한 것이 인간의 기억이자 진실이라는 묵시론적 가정은 그 자체가 진리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섬뜩함을 자아낸다. 기억의 인위적 주입에 의한 세뇌란 점에서 **토탈리콜**은 폴 버호벤이 줄곧 표현해내려 했던 군국주의의 폐해를 상기시킨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허구의 기억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된다.

‘그럼 내가 내가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지?’라며 당혹스러워하는 하우저이면서 웨이드인 주인공은 누구보다 잘 알아왔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부인의 실존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아바타에서는 한층 정교해진 증강된 가상현실 속에서 실체보다 더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는 중국에는 기존의 그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소멸되고 새롭게 부여받은 객체로서 재탄생한다.

실사와 CG와의 만남에서 피가 흐르는 인간보다 인간을 모방한 3차원적 피사체에 관객들이 더 열광했다는 사실은 이미 모방을 통한 탈인격화 내지는 물인간화의 흐름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심상을 혼란스럽게 유평했던 크리스토퍼 놀란은 다크나이트에서는 선과 악의 모호한 이분구도를 세련된 블록버스터로 구현하더니, 드러나지 않는 은유와 상징, 기호를 통해 인셉션으로 관객을 시험하고 있다.

현대적인 SF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블레이드 러너**에서 주인공 데커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제거대상인 리플리컨트를 만나면서 인간성의 함몰에 대해 고뇌하고 절규하게 된다. 이제껏 인지하고 경험해왔던 모든 일들이 일순간 증발되어 아무런 의심 없이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심하게 요동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월남전에 대한 회의적인 자기반성으로 보이는 **야곱의 사다리**는 플래시백과 20년 후의 단상이 교차하는 월남전에서 투여 받은 환각제에 의해 아군끼리 총을 겨누었던 제이콥이 죽기 직전 수초간의 현실과 환상 사이의 몽환적 줄다리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았던 짐 캐리가 마지막 장면 배를 타고 나가 만났던 곳이 실상은 하나의 거대한 세트였음을 알고 망연자실했던 **트루먼 쇼**는 결국 인생이란 실존과 현상사이에서 설세 없이 회의하면서 알을 깨야만 하는 아프락사스의 아픈 여정임을 상기시켜 준다. 

Zoom in Focus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첨단의료장비와
의료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움말/김영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핵의학과 교수
글/오미연 사진/김선재

꼼꼼하게 암을 찾아주는 똑똑한 PET-CT



현대인의 적으로 불리는 암질환 치료를 위해 암세포의 위치와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암 진단영상장비의 역사는 오랜 시간 계속 되어 왔다. 엑스선을 이용한 컴퓨터단층촬영술(CT)에서 시작되어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자기공명영상기법(MRI) 등 다양한 최첨단 영상장비들이 계속 발명되어 왔다.

최근에는 두 장비의 장점을 살린 융합 형태의 의료기기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컴퓨터단층촬영술(CT)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의 결합으로 완성된 PET-CT는 이런 융합진단기기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 온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의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 등 중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6월 PET-CT 도입 이후 시험가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PET-CT 가동에 들어갔다.

PET은 외부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를 영상으로 평가하는 첨단 검사법이다. 우리의 몸은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몸 안에 어떻게 분포되고 이용되는지를 안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ET 검사는 양전자를 내는 방사성의약품을 합성하여 몸 안에 정맥주사 후 검사장비로 이 약품이 몸 속 주요 구성 물질에 분포한 상태를 촬영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몸의 어떤 조직에 기능이나 대사의 이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PET은 체내에서 나오는 신호를 감지해 영상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 안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신호는 피부와 가까운 부분과 비교했을 때 신호가 약해지는 감쇠현상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PET-CT이다.

PET에서 나타나는 감쇠현상을 CT영상을 통해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CT는 주로 몸 밖에서 방사선을 조사해 인체의 각 조직을 투과하면서 생기는 방사선의 변화를 감지해 영상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 등 해부학적인 변화를 관찰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략적인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융합이 시작됐다. 즉, PET-CT는 PET의 발전된 형태로서 CT기술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상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진단 장비의 추세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비에서 더 앞서나가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도입된 'Discovery PET-CT 600'은 현재 국내에 3대 밖에 도입되지 않은 최신 기종이다. 또한 더욱 넓어진 넓이로 검사 시 환자의 답답함을 줄이고 빠른 검사 시간으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움직이는 장기의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어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도 적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몸을 꼼꼼하게 진단하는 PET-CT 도입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박성수 교수 임명
의과대학 학장에 박문일 교수 임명



한양대학교(총장 김종량)는 8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박성수(朴聖洙) 호응기내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의과대학 학장에는 박문일(朴文一) 산부인과 교수를 임명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 8월 9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성수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전체 의료원 차원에서의 경영전략 수립과 경영혁신 TFT를 구성하고, 의무부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

했다. 또한 “특성화 센터 중심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위는 박성수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아래는 박문일 의과대학장)

서일대학교와 의료협력 MOU체결



의료원은 서일대학교와
지난 8월 2일 서일대 누
리관에서 의료서비스 및
임상실습 위탁교육에 관
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의료원은 서일대 교직원
으로 했고, 서일대는 간호
사로서 임용하기로 했다.

비뇨기과, 전립선질환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



비요기과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8일 각각 성동구청과 광진구청에서 전립선질환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서는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뇨기와 이차용 교수가 전립선질환에 관해 강의 했고, 강의 후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배뇨장애 증상지수 체크,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의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여성종합진료센터, 개소 2주년 기념 행사



여성종합진료센터가 지난 7월 7일 개소 2주년을 맞아 본관 2층 여성종합진료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문일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여

성종합진료센터는 모든 여성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5가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센터,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

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본원 응급의료센터는 환자 수에 비례해 의료진의 수가 많고, 응급기도관리와 관련된 장비와 시설 및 연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자동 Call 시스템을 통해 각 진료과의 협진이 빠르게 이루어져,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심장센터 개소



본원은 지난 6월 17일 본관 지하 1층에서 '심장센터'를 오픈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다.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심장센터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위해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돌보는 시스템과 흉부외과, 마취과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서 1등급

본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2009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7.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년 7월 부터 9월까지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이상의 621기관을 선정하여 혈액투석과 관련한 인력, 장비, 환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본원이 받은 종합점수 97.1점은 경기도 지역 평균 80.8점에 비해 16.3점이 앞서는 점수이며,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 81.8점에도 월등히 높은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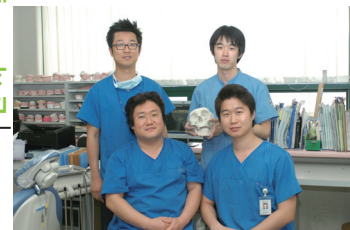
PET-CT 본격 가동



본원은 지난 6월 PET-CT 도입 이후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PET-CT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도입된 PET-CT는 현재 국내

에 3대밖에 도입되지 않은 최신 기종으로 빠른 검사 시간과 선명한 영상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 치료 효과까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양도 적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치과 박창주 교수팀,
세계적 저널에 논문 다수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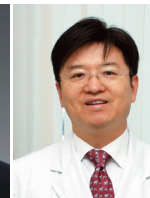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박
창주 교수팀(정세화 R3,
이병하 R2, 임태운 R1)이
지난 6월 유럽의 치과외
상학에 영향력 있는 저널
인 'Dental Traumatology'

에 'Miniscrewanchored-alveolar distraction for the treatment of the ankylosed maxillary central incisor'라는 논문을 게재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난 6월 27에는 임태운 전공의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치과마취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Randomized, double-blind, comparative clinical trial on the efficacy of 4% articaine and 2% lidocaine in inferior alveolar nerve block anesthesia'라는 논문으로 최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사진 :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 박창주 교수, 이병하 R2, 임태윤 R1, 정세화 R3)

호흡기내과 김상헌 교수·윤호주 교수팀,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현 교수·윤호주 교수팀
이 지난 7월 6일 '서울지역
대기오염이 성인 천식 급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 환자교
차연구'에 관한 논문으로 대

한내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흉부외과 신성호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한양대학교교리병원 원 홍부외과 신성호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사에서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11년도 판에 등재됐다.

“작은 나눔,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

대외협력실에서는 의료원과 의과대학 각 교실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의 첫 사업으로 의료원 교직원과

의과대학 동문이 참여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십시일반 발전기금 모금방안

- 용 도**
 - ① 의료원 발전기금 :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투자 등에 사용
 - ② 의과대학 교실발전기금 : 의과대학 각 교실의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 사용
 - ③ 진료과 발전기금 : 진료과의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 사용
- 대 상**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및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 기부금액** 만원, 3만원, 5만원 단위의 소액기부
- 납입방법** 약정서 신청 후 급여공제 또는 자동이체
- 기부절차**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외홍보과로 제출
- 예 우** 기부증서 발행 / 감사카드 발송 / 기부자 명부 영구 보존 등
- 문 의** Tel : 02-2290-9276
Fax : 02-2296-3806
E-mail : hmcfund@hmc.hanyang.ac.kr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2290 - 8114 ● 응급실 : 2290 - 8282 ~ 4 ● 전화예약 : 2290 - 9600 ~ 4 ● 진료의뢰센터 : 2290 - 9717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민호	화,수,목 월,화,금	목	간질환
	함준수	수,금,토(4주)	월	간질환, 담석질환, 위장질환
	최호순	월,목	수,금,토(2주)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목	수,금,토(1주)	식도, 위, 장
	이오영	월,수,토(2주)	목	식도, 위, 장
전대원 이향락 이강녕 주용원 권오완 권영일 손 원	전대원	월,목,토(3주)	수,금	간질환
	이향락	금,토(1주)	화,금	식도, 위, 장
	이강녕	화,토	월,목	식도, 위, 장
	주용원	금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권오완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현길	목	월,수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김정현	수,금	목	협심증, 심장판막증, 고혈압
	김경수	화,목	화,금	허혈성심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장술기세치료
	신진수	월,수,금	월	심부전, 심혈관 중재술
	임영호	월,수,금	목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강종영	월,화,수,금	목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김근호	월,화,금,토(4주)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하	수,목,토(2주)	월,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식	목,토(3주)	월,화,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황규진	월,토(1주)	화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과내과 2290-8300	김태하	월,화,수,목	목	당뇨병, 갑상선
	안유현	화,수,금	월,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수,목	월,화,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홍상모	토	월,화,목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화,금	일반 내분비내과질환
호흡기내과 2290-8302	박성수	화,수,금	월,화	폐암, 폐결핵, 급성폐손상, 폐성유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신동호		화,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윤호주	월,목	수,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김상현	화	월,금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곽현철	월,토(2,4주)	월,토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김인준	화,금	월	빈혈, 혈액암, 고혈압, 골수이식
	이영철	월,수	화,목	혈액질환, 골수이식, 고혈압
	박병배	목	수,금	고혈압,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고정희		월,목	고혈압,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월,목	고혈압,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감염내과 2290-8300	배현주	목	월,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이하백	월,수	목	소아호흡기질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설인준	화,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환
	신재훈	수,목	화	소아내분비질환
	오성희	목,금	월,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수	화,목	소아심장질환
이화중 김용주 박현경 김신영 백해성 고정희	이화중	월(구리),금	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제대혈클리닉
	김용주	화,금,토(1,3주)	수	소아소화기질환
	박현경		금	목아상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신영	금	월,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백해성	화,토(1주)	금	소아호흡기질환, 소아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육아지도실	박현경	월,목	목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고정희	금	목	육아상담실, 예방접종
신경과 2290-8367/ 8368 (비강클리닉)▲ 서관 4층	김주환	월,수	월,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김승현	월,화,목	목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목(1,3주)	루게릭병클리닉
			목(2,4주)	치매클리닉
			목(목요일)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배원기 김영서 박창윤	김희태	화,목	월▲,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혈학
	김현영	화▲,금	화▲,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김희진	수▲,토(2주)	금	손발저림, 어지럼증
	배원기	목▲,토(1주)	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박창윤	금,토(4주)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정신과 2290-8419	남정현	월,목,토(2주)	월,목	사회정신의학, 성폭력상담, 정신분열증, 치매
	안동현	수,토(4주)	월,수,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파양행동증후군
	김석현	화,금,토(2주)	화,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동훈	월,수,목,토(1,3주)	화,금	일반 정신과질환
	이신혜	금	금	소아정신의학
파부과 2290-8434	이창우	수,토	월,목	수포성질환,두드러기, 흉반 및 알레르기질환,피부암
	노영석	화,금	화,금	이도피부염, 여드름, 탈모증, 무좀 및 잔균성질환
	고주연	월,목,토	수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피부종양, 면역피부질환
	김영훈	월,화,금	금	피부외과, 탈모, 피부미용, 비아러스성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경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이강홍	목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토(3주)	월,목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소아외과	하태경	수,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만내과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1,2주)	월	일반 외과질환
	하태경	월,수	금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수술, 탈장수술
	홍부외과	강종영	월,수,금	폐, 종격동 및 식도외과
	김영호	김영호	화,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형외과 2290-8473	정원상	화,목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비	월,수	월,수	선천성 상肢질환, 상肢판막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지현	화	화	일반 흉부외과질환
신경외과 2290-8491	최일웅	화,목	목	고관절클리닉
	김태승	토	월,목	사지근골격계증후군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이광현	월,수	월,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견주관절학
	최충혁	월,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성형외과 2290-8560	강창남	월,금	금	척추외과클리닉, 골다공증
	김이석	금	화,금	고관절,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이봉근	화,목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황규태	금	금	정형외과학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요추디스크, 경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증)
	고 용	월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미세근소침착뇌수술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상지신경 및 통풍성질환, 뇌종양
	백광훈	월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증양
	이형중	월	금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성형외과 2290-8560	전형준	금,토	수	척추질환, 신경손상,통증성질환,척추증양
산부인과 2290-8400	정성노	화,목	목	산전산기혈기, 유전질환, 미세근소침착뇌수술
	김경태	월,금	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상지신경 및 통풍성질환, 뇌종양
	조소현	수,목	월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증양
	박민일	월,목	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황정혜	수	월,목	척추질환, 신경손상,통증성질환,척추증양
안과 2290-8570	김영재	화,토(1,3주)	월,수	일반 산부인과질환, 부임암, 골반경수술, 로봇수술
	호정규	화,토(2,4주)	화,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아비인후과 2290-8580	고명규	금	월,수	외안부(각막, 결막), 백내장, 안병리
	엄기방	월,수	금	노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목	목	망막(당뇨), 유리체, 백내장
비뇨기과 2290-8593	박철원	화,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인면신경마비
	김경태	목	월,목	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태 경	월,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타바이러스, 경부종양, 유방암
	조석현		수	해외장기연수
	류리자	목	월,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비뇨기과 2290-8593	류리자	월,수,토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희선	월,수,토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신광수	화,금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031-560-2220	김준길	월,화,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이재용	수,목	화	허혈성심질환, 중재적 임상 심장학
	최성일	토	월,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박환철	수,목	월,수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031-560-2220	김호중	월,화,목	목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한성웅	수,금	화,목	혈뇨, 신장염, 고혈압, 만성콩팥병
	이주학	토	화,수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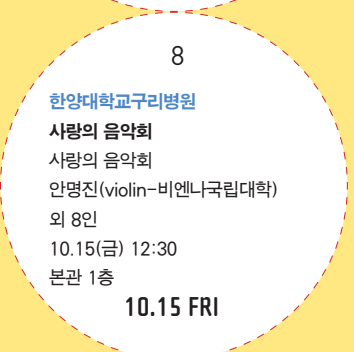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031 - 560 - 2086 ~ 8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핵의학과 2290-9260	김미정 김태곤 이명자 전화정 최유영 김지현	화,금(소아) 월,목 일,화 수,목,금 수 수	월(소아),수 화,금 화,목,금 월,수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이영수 황강균 박창수 임재중 오 영 김광수 한지영	일,화 목,금 목,금 수,금 수,목,금 일~목 토 월~금	수 일,화,수 화,목 일,금 일,화,목 화,금 수	턱알균위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임플란트, 턱알골 성형(기형), 턱관절질환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단법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치과보존학, 심미치과, 근관치료, 미백클리닉 예방치과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가정의학과 2290-8738 산임의학과 2290-8996	박준기 황환식 송재철 이수진	월,수 화,목,금 화,목 월,수	수,목 월,화 화,목 월,수	스포츠의학 간질환, 간염, 간경변, 간염수술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사립중추근
류마티스병원 동관1층 : 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배지현 전재현 김태환 엄완식 성윤경 최찬범 정경희 김민희 박소연 김영삼 이지선 이주현	일,화,목 월,수,목 수,목 화,목 수,목,금 월,수,금 월,화,금 수,토 토 화 목 금	화,수 월,수 수,목 월,화,목 수,목 일,수 월,수 목 수 금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섬유염/관절염, 근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푸스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계성,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푸스, 베체트병, 팔염염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류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

진료과	의사명	오전
-----	-----	----

09
10

2010 September
October



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플룻 앙상블
구리시 교향악단
9.3(금) 19:00
본관 1층

9.3 FRI

2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오카리나 연주
박혜진 외 5명
9.10(금) 12:30
본관 1층

9.10 FRI

3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안명진(violin-비엔나국립대학)
외 8인
9.17(금) 12:30
본관 1층

9.17 FRI

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황재경 목사(Grace Christian
College 음악박사)
9.24(금) 12:30
본관 1층

7.24 FRI

5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9.27(월) 19:00
본관 1층

9.27 MON

6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김정웅 지휘자(경희대 대학원 성악 졸업)
10.1(금) 12:30
본관 1층

10.1 FRI

7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황재경 목사
(Grace Christian College 음악박사)
10.5(화) 19:00
본관 1층

10.5 TUE

8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안명진(violin-비엔나국립대학)
외 8인
10.15(금) 12:30
본관 1층

10.15 FRI

9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재원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소아과)
키튼트리오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
10.22(금) 12:30
본관 1층

10.22 FRI

10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10.25.(월) 19:00
본관 1층

10.25 MON

11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이명화(백석대 피아노 졸업)
10.29(금) 12:30
본관 1층

10.29 FRI

12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호흡재활
10.30(토) 본관 3층 대강당
이규훈 교수(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관절재활의학과)

10.30 SAT



<http://hmc.hanyang.ac.kr>



국내 최초의 류마티스 전문병원은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최초가 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류마티스병원은 항상 선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